

# 정신간호사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류세앙<sup>1</sup> · 문소현<sup>1</sup> · 최정숙<sup>2</sup> · 김부희<sup>2</sup>

<sup>1</sup> 국립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 국립나주병원

## *Perception of Recovery, Self-esteem, Role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i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Ryu, Se-Ang<sup>1</sup> · Moon, So-Hyun<sup>1</sup> · Choi, Jeongsuk<sup>2</sup> · Kim, Boohee<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sup>2</sup> Naju National Hospital

### 주요어

회복,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직무만족, 정신간호사

### Key words

Recovery, Self concept,  
Role, Job satisfaction, Nurse

### Correspondence

Moon, So-Hyun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61, Dorim-ri, 1666 Youngsan-ro,  
Cheonggye-myeon, Muan-gun,  
Jeonnam, 534-729, Korea  
Tel: 82-61-450-2674  
Fax: 82-61-450-2679  
E-mail: shmoon@mokpo.ac.kr

투 고 일: 2012년 10월 18일  
수 정 일: 2012년 11월 19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0일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erception of recovery, self-esteem, role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61 psychiatric nurses from G city & J province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8.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between upper 25% and lower 25% group for perception of recovery, self-esteem, and role performance. Result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difference in the related factors and in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ship evaluated by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Significant factors, listed by the magnitude of beta coefficients, were role performance, self esteem,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recovery, expectations regarding recovery in perception of recovery.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16% of job satisfaction.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to improve psychiatric nurses' job satisfact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programs including personal qualities and perception of recovery.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consensus on roles of the related factors of job satisfaction.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직무만족이란 직무의 여러 요소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지니게 된 직무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말한다(Robbins & Judge, 2008). 직무만족은 조직유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

고되어 왔으며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와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Kim & Park, 1999).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높을 때 환자의 만족 역시 높고, 직무만족이 높은 간호사가 생산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직무만족은 이직하지 않고 현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Ellenbecker, Porell, Samia, Byleckie, & Milburn, 2008). 따라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요구에 따라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호

사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직무에 대한 만족은 업무의 내용, 대상자와 상호작용, 성과 중심 또는 대상자 중심 업무의 여부 등의 직무 특성과 보수, 승진기회 등의 직무환경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Parahoo & Barr, 1994), 개인적 특성 역시 직무 특성 및 직무환경 특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직무 자체 또는 조직에 대한 태도의 좋고 나쁨과 그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Kim & Park, 1999).

정신건강간호 업무의 핵심은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통해 대상자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도움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데 있으므로, 정신간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고 균형 있는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정신질환 대상자의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Eckroth-Bucher, 2001; Yang, Lee, & Yu, 2004). 정신간호사는 자신의 실무 자체로부터 직무에 만족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가장 강한 영향요인은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이며, 치료적 관계는 역할수행에 의해 매개된다(Ward & Cowman, 2007; Wilson & Crowe, 2008). 정신간호사가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어떻게 인식 하는가 역시 대상자를 위한 모든 활동에 영향을 주어 치료적 관계를 촉진시키고 결국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Kim, Keum, Kim, & Kim, 2010).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치료자가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격려함으로써 간호사-환자의 관계를 치료적이고 건강하게 할 것이므로(Eckroth-Bucher, 2001), 간호사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갖는다면 정신간호사로서 전문적 역할수행에 장애가 될 것이다(Leddy & Pepper, 1998; Kwon et al., 1997). Chang, Li, Wu와 Wang (2010) 역시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요약해 보자면,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정신건강 업무의 특성인 치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역할수행은 이 관계를 촉진한다(Ward & Cowman, 2007; Wilson & Crowe, 2008). 그리고 정신간호사가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회복에 대한 인식에 바탕으로 두고 있다(Kim et al., 2010).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회복에 대한 인식과 역할수행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개인적 특성의 하나인 자아존중감 역시 건강한 치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의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Kim 등(2010)이 유일하게 정신보건전문가의 회복에 대한 인식과 직무만족 간의 관련성을 연구했지만 유의미한 상관성을 밝히지는 못했다. 그리고 정신간호사의 역할수행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에 대하여 Kim (1998)의 연구가 있었는데 그는

정신간호사가 역할수행을 잘한다고 인식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You와 Lee (2012)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보상체계와 리더십과 자아존중감과 경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아서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라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건강간호에 있어 새롭게 대두된 중요한 개념인 정신간호사의 회복에 대한 인식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와 정신간호사의 역할수행과 자아존중감 역시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규명 하고자 시도되었고, 이를 통해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 1) 정신 간호사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직무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 2) 정신 간호사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정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정신 간호사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정신간호사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와 J지역에 소재한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정신병원 7곳에서 임의 표출하였다. 이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중회귀 모형에서 고려한 독립변수의 수 5개, 유의수준 5%, 검정력 95%,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인 .15로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표본의 크기가 13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총 161명이었다.

### 3. 연구 도구

#### 1) 회복에 대한 인식

Bedregal, O'Connell과 Davidson (2006)이 개발한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RKI)를 Kim 등 (2010)이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점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회복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하위 영역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책임감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문항 내용으로 구성된 '회복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 영역 7문항, '증상조절은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비선형적인 회복과정" 영역 6문항, '취미와 여가활동은 회복에 중요하다.'와 같은 문항내용으로 구성된 "회복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동료의 역할" 영역 5문항, '모든 환자가 회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회복에 대한 기대" 영역 2문항이다. Kim 등(201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2이었다.

#### 2)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의 'Self-Esteem Questionnaire'를 Kang (1995)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6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Kang (199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 3) 역할수행

Yang (199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일차 간호실무자, 연구 및 개발자, 사례관리자, 교육자, 상담 및 문제 해결자, 팀 협력자, 치료자 7개 간호영역,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못하고 있다" 1점에서부터 "항상 수행하고 있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Yang (199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 4) 직무만족

Slavitt, Stamps, Piedmont와 Hasse (1978)가 의사, 간호사, 보건의력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Park과 Yun

(1992)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보수, 자율성, 전문직업적 수준, 업무요구, 상호작용, 의사·간호사와의 관계, 행정 부분으로 구성된 총 3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Yun (199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4. 자료 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2월 19일부터 2010년 1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각 병원의 간호부장과 팀장들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동의의를 구하였다. 각 병원의 간호부장이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에게 연구목적과 비밀유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배부한 총 215부 중에서 179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1부를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2010년 11월에 연구자의 소속대학 한방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승인번호: DSGOH-003).

###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Turkey 다중비교검정으로 사후 검증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영역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분석은 t-test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직무만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단계적 중 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62명(38.5%), 30대가 46명(28.6%), 20대가 42명(26.1%)순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108명(67.1%)

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75명(46.6%), 대졸 62명(38.5%)으로 차지하였다. 종교는 있음 103명(64.0%), 없음 58명(36.0%)로 나타났다. 현재 직위는 일반간호사 121명(7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직 총 근무경력은 5-9년 근무경력이 43명(26.7%), 4년 이내 경력이 33명(20.5%), 20-24년 경력이 29명(18.0%)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근무경력이 4년 이내가 65명(40.4%), 5-9년 경력이 44명(27.3%)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2. 대상자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직무만족 정도

본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점평균 3.32점이었고, 회복에 대한 인식에서 하위 영역 별 항목의 평점 평균점수는 “회복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 영역이 2.94점, “비선형적인 회복과정” 영역이 3.47점, “회복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동료의 역할” 영역이 3.62점, “회복에 대한 기대”

영역이 3.39점이었다. 자아존중감은 평점평균 4.36점, 역할수행 평점평균 3.02점, 직무만족 평점평균 3.24점이었다(Table 2).

Table 2. Level of Perception of Recovery, Self-esteem, Role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N=161)

Variables	M±SD	Min	Max
Perception of recovery	3.32±0.30	2.55	4.20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recovery	2.94±0.40	1.86	3.86
Non-linearity of the recovery process	3.47±0.47	2.17	4.67
Roles of self-definition and peer in recovery	3.62±0.48	2.40	4.80
Expectations regarding recovery	3.39±0.64	2.00	5.00
Self-esteem	4.36±0.63	2.00	5.55
Role performance	3.02±0.57	1.65	4.33
Job satisfaction	3.24±0.40	2.40	4.93

Table 1.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Job satisfaction	
			M±SD	t or F (p)
Age (yr)	20-29	42 (26.1)	3.22±0.38	.61 (.610)
	30-39	46 (28.6)	3.29±0.39	
	40-49	62 (38.5)	3.21±0.35	
	≥ 50	11 (6.8)	3.35±0.73	
Marital status	Married	108 (67.1)	3.25±0.39	.67 (.511)
	Never married	50 (31.1)	3.24±0.41	
	Divorce or seperation	3 (1.8)	2.92±0.21	
Education	College graduate	75 (46.6)	3.26±0.38	.28 (.758)
	University graduate	62 (38.5)	3.21±0.37	
	≥ Graduate	24 (14.9)	3.34±0.52	
Religion	Yes	103 (64.0)	3.22±0.37	-1.14 (.256)
	No	58 (36.0)	3.29±0.44	
Current position	Staff nurses	121 (75.2)	3.21±0.41	-1.65 (.101)
	≥ Head nurses	40 (24.8)	3.33±0.35	
Total career as a nurse (years)	< 4	33 (20.5)	3.39±0.43	1.91 (.095)
	5-9	43 (26.7)	3.16±0.43	
	10-14	20 (12.4)	3.27±0.32	
	15-19	25 (15.5)	3.29±0.31	
	20-24	29 (18.0)	3.12±0.41	
	25-29	11 (6.8)	3.30±0.32	
Years working in mental health nursing	< 4	65 (40.4)	3.32±0.43	1.40 (.224)
	5-9	44 (27.3)	3.21±0.41	
	10-14	18 (11.2)	3.14±0.28	
	15-19	12 (7.5)	3.26±0.33	
	20-24	15 (9.3)	3.07±0.37	
	25-29	7 (4.3)	3.36±0.39	

3. 대상자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정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정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Everson, Goldberg, Kaplan, Julkunen과 Salonen (1998)의 방법을 참조하여 연구결과를 확인함에 있어서 더욱 보수적인 통계치를 사용하고자 독립변수 척도의 점수를 상, 하위 25%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점수에서 상, 하위 25%에 속하는 대상자의 직무만족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3).

4. 대상자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과 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은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회복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 $r=.12, p=.043$ ), 비선형적인 회복과정( $r=.17, p=.027$ )과 자아존중감( $r=.24, p=.003$ ), 역할수행( $r=.30, p<.001$ )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

위영역인 회복에 대한 기대( $r=-.12, p=.044$ )와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대상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회귀분석 전에 다중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가 0.80 미만이었고 독립변인간의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80-.94로 0.3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16-1.057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한 Durbin-Watson 값이 1.561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회복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 비선형적인 회복과정, 회복에 대한 기대와 자아존중감, 역할수행을 단계별 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직무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로는 역할수행(9%)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회복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 및 회복에 대한 기대가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대상자의 직무만족을 16%

Table 3. Means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by Level of Perception of Recovery, Self-esteem, and Role Performance (N=161)

Variables	Category	n	Job satisfaction		t	p
			M	SD		
Perception of recovery	Lower 25%	41	3.14	0.26	-2.03	.043
	Upper 25%	50	3.30	0.44		
Self-esteem	Lower 25%	44	3.11	0.35	-3.91	<.001
	Upper 25%	42	3.44	0.43		
Role performance	Lower 25%	34	3.07	0.32	-3.18	.002
	Upper 25%	37	3.33	0.35		

Table 4.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N=161)

	Perception of recovery				Self-esteem	Role performanc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recovery	Non-linearity of the recovery process	Roles of self-definition and peer in recovery	Expectations regarding recovery		
Job satisfaction	.12 (.043)	.17 (.027)	.12 (.072)	-.12 (.044)	.24 (.003)	.30 (<.001)

Table 5. Variables Predicting Job Satisfaction (N=161)

Variables	$\beta$	t (p)	R <sup>2</sup>	F	p
Role performance	.27	3.52 (.001)	.09	7.76	<.001
Self-esteem	.25	3.16 (.002)	.12		
Perception of recovery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recovery	.18	2.33 (.022)	.14		
Expectations regarding recovery	-.65	-2.10 (.038)	.1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논 의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정도와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직무만족 정도를 확인하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정도는 평점평균 3.32점이었고, 하위영역별 평점평균점수는 “회복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동료의 역할” 영역이 3.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선형적인 회복과정” 영역이 3.47점, “회복에 대한 기대” 영역이 3.39점, “회복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 영역이 2.94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여 회복에 대한 인식정도 평균 점수 3.2점을 보고하였고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 중 회복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동료의 역할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Kim 등(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4.36점으로 정신간호사 자아존중감 점수를 중간이상으로 보고한 Kang (2011) 결과와 유사하였고, 역할수행 정도는 3.02점으로 정신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로 평균평점 2.96점을 보고한 결과(Jung & Lee, 2004)와 유사하게 중등도의 역할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정도는 3.24점으로 Kim 등(2010)의 연구에서 정신보건전문가들 중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 평점평균 점수를 3.3점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정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회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역할수행을 잘 할수록 직무만족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회복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른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려우나 정신보건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회복에 개념에 따라 업무 활동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지며 이에 근거한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한 가설이 지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im et al., 2010). 정신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촉진적 간호행위가 증가하여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과(Kwon et al., 1997), 연구대상자는 다르지만 호스피스 역할수행정도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Han, 2008). 이러한 결과는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유의한 요소이고, 정신질환자 치료 유지를 위한 모든 활동에 정신간호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의 수행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 예측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만족은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회복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 비선형적인 회복과정과 자아존중감, 역할수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전문가의 회복에 대한 인식과 업무만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Kim 등(2010)의 연구에서는 회복에 대한 인식과 업무만족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회복 인식의 하위항목인 회복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동료의 역할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였다. Kim 등(2010)의 연구 대상자는 간호사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사를 포함 이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업무만족 측정도구를 간호사를 포함한 정신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이 정신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 결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 뿐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진 상태’로서의 회복이 아닌 ‘비선형적인 과정’으로서의 회복에 대한 인식과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과정으로서 회복을 이해하는 인식의 변화가 정신간호사의 업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처럼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과 회복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역할수행이었고 자아존중감,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회복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 및 회복에 대한 기대 등 4가지 변수가 직무만족을 16% 설명하였다. 역할수행 및 능력이 직무만족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와(Han, 2008; Kim, 2008; Lee, 2011)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직무만족이 높아지고(Kwon et al., 1997),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존중과 생각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Barkhordary, Jalalmanesh, & Mahmoudi, 2009)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게 역할수행과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유지를 위한 모든 활동에 중요한 역할수행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문적인 정신간호사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과 내적 동기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 직무만

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정신 장애인들의 회복을 돕는데 꼭 필요하고 정신보건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복의 의미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로 명백히 소개되지 못하고 있으며(Resnick, Fontana, Lehman, & Rosenheck, 2005),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인식이 치료 및 간호중재에 영향을 주어 직무만족에 까지 긍정적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이 직무만족에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질병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회복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식 변화를 통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및 인식 향상을 위한 개입 뿐 아니라 성공적인 역할수행 및 자아존중감 강화를 통한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직무만족의 예측변수로 4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설명력이 16%로 낮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국내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요인으로 본 연구의 회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의 낮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치료자의 입장에서 질병의 완치 및 증상이 소멸된 것을 회복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정신질환자의 소비자 입장에서 회복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대상자들이 정신질환자의 관점에서 도구의 문항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회복에 대한 하위 영역의 인식 점수가 낮은 것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회복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회복에 대한 인식수준이 아직 치료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연구와(Kim et al., 2010) 유사하게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신간호사 역시 인식 전환의 어려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향요인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 간 독립적인 연관성이 제시된 변수를 선정하였으나,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 161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직무만족은 회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상위 25%그룹이 하위 25% 그룹보다 직무만족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무만족과 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회복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 비선형적인 회복과정과 자아존중감, 역할수행과 정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변수는 역할수행, 자아존중감, 회복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회복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 및 회복에 대한 기대 등 4가지 변수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의 요인으로 회복에 대한 인식과 역할수행 및 개인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희망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 역할수행 및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본 연구는 일부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및 조사 방법의 보완을 통한 추후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서 정신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의 일부를 다루었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의 다른 영향요인과 직무만족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모색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Barkhordary, M., Jalalmanesh, S., & Mahmoudi,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self-esteem in third and fourth year bachelor nursing students. *Irani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9, 13-20.
- Bedregal, L. E., O'Connell, M., & Davidson, L. (2006). The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Assessment of mental health staff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recovery.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0, 96-103. <http://dx.doi.org/10.2975/30.2006.96.103>
- Chang, Y. H., Li, H. H., Wu, C. M., & Wang, P. C. (2010).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on nurses' job satisfaction in Taiwan.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7, 478-484. <http://dx.doi.org/10.1111/j.1466-7657.2010.00825.x>
- Eckroth-Bucher, M. (2001). Philosophical basis and practice of self awareness in psychiatric nursing.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39(2), 32-39.
- Ellenbecker, C. H., Porell, F. W., Samia, L., Byleckie, J. J., & Milburn, M. (2008). Predictors of home healthcare nurse retentio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0, 151-160. <http://dx.doi.org/10.1111/j.1547-5069.2008.00220.x>

- Everson, S. A., Goldberg, D. E., Kaplan, G. A., Julkunen, J., & Salonen, J. T. (1998). Anger expression and incident hypertension. *Psychosomatic Medicine*, 60, 730-735.
- Han, H. S. (2008). *Role accomplishment and job satisfaction of hospice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S. M., & Lee, K. O. (2004).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role performance of the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402-414.
- Kang, J. H. (1995).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self-esteem of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M. H.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404-413.
- Kim, M. H. (2008). *A study of relation between grade of nurse staffing and nursing practice, nurse's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orie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S., & Park, Y. B. (199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ob characteristics perceived by nurses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 1434-1444.
- Kim, S. A., Keum, R., Kim, H. L., & Kim, S. E. (2010). The perception of recovery and job satisfaction in communit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 163-172.
- Kim, T. H. (1998). *A comparative study of the duty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and general nurse in the ment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J. E., Kim, J. H., Moon, S. J., Seo, H. A., Lee, M. K., Ji, E. J., et al. (1997). Self-esteem and facilitative nursing behavior i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30, 92-101.
- Leddy, S., & Pepper, J. M. (1998). *Conceptual bases of professional nursing* (4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 Lee, Y. H. (2011). *Competency of nursing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the nurses in the operating ro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Parahoo, K., & Barr, O. (1994). Job satisfaction of community nurses working with people with a mental handicap.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 1046-1055.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4.20061046.x>
- Park, S. A., & Yun, S. N. (1992). Measurement of job satisfaction of nurses and health workers in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 316-324.
- Resnick, S. G., Fontana, A., Lehman, A. F., & Rosenheck, R. A. (2005). An empirical conceptualization of the recovery orientation. *Schizophrenia Research*, 75, 119-128. <http://dx.doi.org/10.1016/j.schres.2004.05.009>
- Robbins, S. P., & Judge, T. A. (2008). *Essentials of organizational behavior* (9th ed.). NJ: Prentice Hall .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lavitt, D. B., Stamps, P. L., Piedmont, E. B., & Hasse, A. M. (1978). Nurse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ing Research*, 27, 114-120.
- Ward, M., & Cowman, S. (2007). Job satisfaction in psychiatric nursing.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 454-461. <http://dx.doi.org/10.1111/j.1365-2850.2007.01104.x>
- Wilson, B., & Crowe, M. (2008). Maintaining equilibrium: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for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816-822. <http://dx.doi.org/10.1111/j.1365-2850.2008.01319.x>
- Yang, K. S. (1999). *Study on the role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S., Lee, G. J., & Yu, S. J. (2004). A comparative study on work satisfaction of PMHNPs in the hospital and community.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487-495.
- You, K. Z., & Lee, K. H. (2012). Job satisfaction of psychiatric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 108-115.